백두산

6호 - 주체91(2002)년 4월 20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정일총비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 관람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16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지재룡,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에는 **김정일**령도자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장 울라지미르 아나똘리예비치 야꼬블레브일행과 우리 나라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겐나지예비치 까를로브를 비롯한 대사관의 공식외교관들이 초대되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조선의 모습≫, ≪압록강 2천리≫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에 초대된 로씨야의 손님들은 뜻깊은 명절에 훌륭한 공연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김정일**령도자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국방부 F-15K 선정, 시민단체 범국민 저항운동 선포

오는 2009년까지 44억6천688만 달러(약 5조8천억원)을 투입, 40대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FX)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최종 선정됐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화상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효 차관 주재로 확대 획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오후 2시 국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FX 외압의혹 규명 및 F-15K 선정 내정 철회 공동행동은 오후 2시 30분 F-15K를 FX사업 기종으로 최종 결정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GE 엔진 선정 등1단계 평가에 이은 2단계 평가의 불공정성 △김홍걸, 최규선씨 등 권력핵심부 인사들의 F15K 선정유도 불법 로비 등 잇따르는 의혹 △다른 기종에 비해 3억 5천만 달러 이상 높은 도입가격 등 막대한 국익 손실 △사대주의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기종 선정 등으로 인한 국민 자존심 훼손 △FX 사업 자체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역행하는 것 등을 반대이유로 들며, FX사업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이김현숙 대표는 ≪이번 F-15K 선정 과정을 통해 국민의 여론보다 미국의 요구에 더 신경쓰는 국방부의 모습을 봤다≫며 ≪국방부의 의혹투성이 FX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차후에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자통협 문규현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은 F-15K 선정에 대한 재가를 거부하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규현 의장은 또 FX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F-15K 불법 로비 관련자 구속수사를 비롯, FX사업을 파행으로 이끈 국방장관을 퇴진시키는 등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를 종용했다.

이들은 F-15K 선정 철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1인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견 공군 예비역 중령 등 공군 예비역 장교 1백63명은 이날 ≪조주형 대령의 행위는 공군의 미래와 조국을 위한 행동 이었다≫며 조 대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조주형 대령은 이날 옥중에서 차기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국방부가 추진해온 수순대로 가는 것 같다≫며 ≪공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건대 F-15K는 곤란하다. F-15K로 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미군에 종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담당 변호사가 밝혔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방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은 이날 오후 국방부 발표 직전부터 국방부에 항의 이메일을 무더기로 보내 이날 오후 2시전부터 국방부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오늘 국방부의 F-X사업 2단계 평가결과 발표로 차세대전투기는 F-15K로 공식 결정됐지만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예정이어서 F-X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전홍기혜기자
프레시안 2002/04/19

2 종합
- 평양선언발표 10돐기념 평양시군중집회
-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위대한 정치강령
-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 국방부, 차기전투기로 F-15K 최종결정
- ≪F-15K 결정≫ 분노의 물결!
- 대답없는 청와대
- 네티즌들 울분..국방부 홈페이지 마비
- 미국은 랭전정책을 버려야 한다

5 칭송
- 태양절 만세
- **김일성**주석은 통일조선의 영원한 수령

6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1)

8 세기와 더불어
- 6장 7절 소사하의 가을(1)

10 노동신문 정론
-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2)

11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 밀영에서 탄생

10 노동신문 정론
-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2)

13 투쟁보도
- 테러방지법 저지 결의대회
- 오월 시민법정에서 미국 책임 단죄
- 박정희 기념관에는 땅 한평도 줄 수 없다
-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 대학 총학생회장단, 교육부장관 고발
- 전국 대학가, 4.19 기념행사

15 운동강좌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가지 논제(5)

평양선언발표 10돐기념 평양시군중집회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발표 10돐기념 평양시군중집회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당, 정권기관, 과학, 교육, 대외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집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당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그는 10년전 평양선언의 발표는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새 출발을 선포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의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에게 공동의 투쟁강령을 안겨 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평양선언에는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숭고한 목적과 그 수행을 위한 근본방도, 새로운 기초우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강령이 집대성되여 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정당들과 인민들은 평양선언을 사회주의를 위한 헌장으로, 투쟁강령으로 삼았다. 평양선언에 서명한 정당들이 오늘 근 260개로 늘어난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지난 기간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평양선언의 숭고한 리념을 리행하는데서 자기 앞에 지닌 민족적 및 국제적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어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한누 하르유,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호쎄 레이날도 까르발료,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케이. 피. 샤르마 올리가 연설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우월성은 조선의 현실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야말로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승리에로 이끄는 만능의 보검이며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평양선언은 엄혹한 정세속에서 혁명력량을 대표하는 정당들을 묶어 세우고 세계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재생재건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킨 승리의 기치로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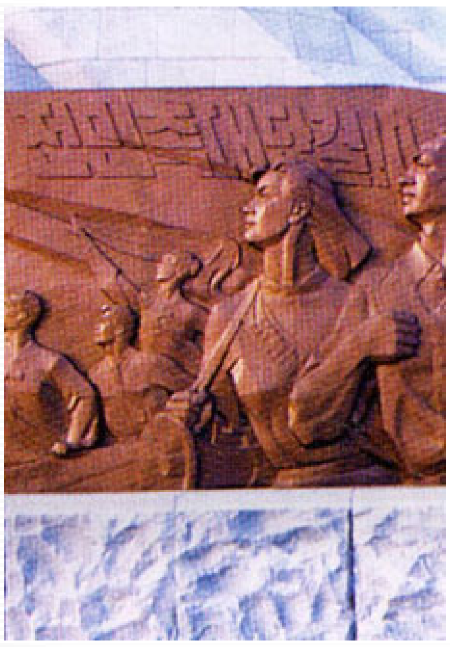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8일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정치강령

오늘호 이곳 신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정치강령이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 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라는데 대해 천명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은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남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매국적인 외세공조는 애국적인 민족공조로 확고히 전환되여야 하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단합과 통일을 범죄시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은 반드시 철페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외세와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이 땅에서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뿌리채 뽑아 없애야 한다.

론설은 민족대단결의 생명력은 온 민족이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뭉치는데 있다고 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기치따라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조선≫ 론설의 필자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옳바른 민족단합강령,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8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국제기구대표들 참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통일의 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내놓으시였다고 하면서 **김정일**각하에 의해 조선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된 이 제안들은 조선통일의 최고강령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조국통일사상과 애국애족의 헌신성으로 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북과 남, 해외의 조선인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환영함으로써 조선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서 조선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과감히 벌려 나갈것이라고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이어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위원장 케이. 피. 샤르마 올리, 꾸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 쎄르히오 꼬리에리 에르난데쓰 등이 연설하였다.

이어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 문재철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집회에서는 또한 조선에서 미국의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의 명의로 된 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성명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우리들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압살정책과 반통일책동을 반대하며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 나갈것이다.

우리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조선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것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도전하는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우리들은 미국과 일본이 조선에서 저지른 범죄를 폭로단죄하며 부쉬행정부가 성실한 자세에서 조미대화에 응해 나올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것이다.

련대성집회가 끝난 다음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8일

국방부, 차기전투기로 F-15K 최종 결정

국방부, ≪공정한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믿어달라≫ 호소

19일 오전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FX)기종을 미국 보잉사의 F15K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또 2단계 평가에서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의 기준으로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중시 여기겠다고 발표했으나 F15K 엔진으로 F15기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은 미국 GE 엔진을 선정, 선정기준의 불투명성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44억달러 (한화 5조 8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이번 FX사업은 그동안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외압의혹, 얼마 전 최규선씨 불법 로비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국민적 반대여론이 무성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F15K 선정에 이어 GE 엔진을 선정한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국방부가 자신이 했던 약속마저 뒤집으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방부의) F15K 선정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배반, 우롱한 것이자 국가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무참히 밟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권영효 차관

FX 사업과 관련 외압, 의혹설 등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19일 오후 2시 국방부 기자실에서 F-X 기종 결정 기자회견을 통해 FX사업 기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라는 얘기 등은 지나치다≫며 ≪전문가들이 결정할 사항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태도를 취했다. 국방부는 ≪비리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전문적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겨 달라≫고 대답했다.

국방부는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FX사업 관련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방부의 발언에 자통협 김종일 사무처장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토론을 해보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질문에 (국방부 전문가)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자신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만 맡겨달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FX 사업기종 결정을 위해 열린 확대 획득회의에서,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은 FX 사업과정이 공정했으며,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얼마전 모 방송국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현직 공군이 ≪불안해서 전투기를 못 타겠다≫고 보도된것에 대해 김성일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공군이 F-15K 군 운용 적합성을 직접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 가장 만족스러웠다≫며 ≪공군의 이러한 평가대로 (F-15K가) 선정됐다≫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방부 최동진 획득실장은 1단계 평가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평가내용을 공개할 경우 이번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이 내세웠던 3종의 탈락 기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법원 등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평가 내용을 제 출할 의향은 있다≫고 전했다.

권영효 국방부 차관은 ≪FX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국방부를좀 더 믿어주길 바란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국방부의 F-X 기종 선정 결과발표에 앞서 이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반발로 국방부 사이트는 30여분간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다.

FX 공동행동은 ≪F-15K 선정이 철회될 때까지 사이버 시위를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9

≪F-15K 결정≫ 분노의 물결!

≪오늘 F-15K가 결국 선정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방부의 결정이 한국민을 얼마나 배신하는 행위였는지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대표는 국방부가 19일 차세대전투기로 F-15K를 선정하자 격앙된 목소리로 국방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가 19일 오후 2시 F-X 사업 2단계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 F-15K를 차세대전투기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F-X공동행동)은 오후 2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에서 ≪F-15K 확정발표 국방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취지설명을 통해 이김현숙 대표는 ≪F-15K 선정소식에 너무 놀랐고 한미관계에서 한국정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국방부가 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미국에 대한 식민지적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김현숙 대표는 ≪이제 무감각한 침묵의 상황을 깨고 온 국민이 F-X 사업반대의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할 때≫라며 ≪국방부의 이번 F-15K 선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가를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F-15K 선정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배반, 우롱한 것이자 국가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F-15K선정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은 ≪국민을 속이고, F-X 사업에 대한 온갖 의혹을 진상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국방부의 F-15K 선정은 원천무효≫라며 △대통령의 F-15K 재가 거부 △김홍걸, 최규선씨 구속수사와 국방장관 파면 △F-X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F-X사업의 연기와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F-X공동행동은 F-15K선정 대통령 재가거부를 촉구하며 범국민서명운동, 신문광고, 사회원로선언, 사이버시위 등의 향후 실천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F-15K 선정철회와 F-X사업에 대한 연기를 끊임없이 주장했음에도 국방부가 F-15K를 예상대로 차세대전투기로 선정하자 집회참가자들의 규탄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를 취재하는 보도경쟁도 뜨거웠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에는 어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요청했던 사회단체대표단이 전날에 이어 청와대로 찾아갔지만 경찰의 저지에 막혀 3시간 동안 의도치 않은 차량시위를 벌였다.

전날 ≪찾아오면 막지 않겠다≫는 종로경찰서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이 차량 2대를 타고 경복궁 동편 길로 청와대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은 순찰차와 버스 2대로 대표단의 차량을 막아 나섰다.

대표단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대표단은 차량에 ≪Fresident Kim say No F-15K≫, ≪Withdraw the selection of F-15K Jet Fighter≫등의 문구를 써붙이고 차량시위를 벌였다.

청와대의 면담거부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문규현 신부는 ≪착잡하다. 국민의 소리를 이렇게 듣지 않으니 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할지......≫라며 말문을 흐렸다.

이날 대표단의 청와대 차량시위 도중에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대표가 경찰의 부주의한 운전에 의해 경찰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생겨 대표단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경찰은 사과와 함께 119 구급차량으로 명동 백병원으로 박순희 대표를 급하게 옮기기도 했다.

오늘 국방부의 F-X사업 2단계 평가결과 발표로 차세대전투기는 F-15K로 공식 결정됐지만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예정이어서 F-X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19

시민단체 면담요구, 대답없는 청와대

≪집에 찾아온 거지도 줄 것이 없으면 이유를 설명해주는게 우리네 정서인데...≫

18일 오후 2시 F-15K 내정철회와 F-X사업 연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위해 청와대 55호 면회실로 찾아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는 기다린지 몇 시간이 지나도 면담여부에 관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결국 분통을 터트렸다.

문규현 신부는 ≪지난 달부터 공식문서로 2번 면담요청을 했고, 유선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만나주지를 않아서 이렇게 직접 청와대로 찾아왔다≫며 청와대로 직접 찾아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직접 찾아온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상임대표, 서경원 평통사 공동대표, 고영대 자통협 집행위원장, 박석운 자통협 홍보국장, 진용근 자통협 문예위원장등 8명의 대표단은 F-X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과 F-15K 내정철회, F-X사업 연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대표단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은 청와대 경비담당자들은 ≪외교안보수석이 지금 자리에 없어 면담이 어렵다≫며 ≪다음날 약속을 잡고 오라≫고 대답을 했고, 이에 대해 대표단은 책임있는 사람과의 면담약속 보장을 요구하며 55호 면담실을 떠나지 않았다.

면담을 요구한지 몇 시간이 지나도 청와대 관계자의 명확한 대답이 없자 대표단은 ≪외교안보수석이 안되면 국방담당 비서와 연락이라도 하자≫고 요구를 했고, 청와대 민정담당 관계자가 ≪알아보겠다≫고 하며 민원실을 떠났다.

대표단이 민원실에 도착한 지 5시간이 지난 6시 25분경 다시 나타난 청와대 민정담당 관계자는 ≪국방담당 비서가 F-X사업에 대한 공식발표가 내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라며 면담을 거부했다≫고 대표단에게 알렸다.

서경원 공동대표는 ≪우리가 4시간 넘게 이 자리에서 기다렸고, 다른 일도 아닌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못한다니 차라리 슬픔을 느낀다≫며 면담거부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청와대의 면담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실을 떠나지 않았고, 오후 8시 20분경 종로경찰서장이 찾아와 ≪내일 청와대를 찾아와도 막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대표단은 청와대를 떠났다.

오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의 면담에 실패한 대표단은 내일 오전 9시 F-15K 선정철회와 F-X 사업연기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다시 찾아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내일 오후 2시 F-X사업 2단계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 F-15K를 차세대전투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F-X 사업에 대한 무수한 의혹규명과 F-15K 선정철회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19

네티즌들 울분..
국방부 홈페이지 마비

국방부가 논란끝에 차기전투기(F-X)를 미국 보잉사의 F-15K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18일 오후부터 일부 언론매체에서 차기전투기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의 ≪열린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속속 올라왔다.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이날 오후2시 발표시점이 다가오면서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는 바람에 다운되는 사태를 빚었다.

특히 최근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 보잉사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점과 이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컸다.

대부분 1970년대 개발된 ≪고물 전투기≫를 국민의 혈세로 사들여 21세기 영공을 지킨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한 시민은 ≪노태우 대통령시절 시행된 율곡사업에서 F-18을 선정했다 국방부와 고위층의 압력으로 인해 나중에 F-16로 변경됐다≫며≫현재 F-16은 엔진결함으로 100여대가 발이 묶인 상태≫라며 포문을 열었다.

≪애국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고물 비행기를 사겠다는데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당신들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라고 타일렀다.

≪오노≫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네티즌은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밥이자 봉≫이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은 ≪국방부는 미국방성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며 선택배경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유행중인 조지 W.부시 미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간 대화를 묘사한 대사의 일부를 인용해 미국측이 ≪F-15 자전거(전투기를 지칭)≫를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구체적으로 기술 결함까지 거론하면서 F-15K 전투기 선정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일부는 발표철회를 요구하는 등 국방부를 맹폭했다.

문관현기자
연합뉴스 2002/04/19

미국은 랭전정책을 버려야 한다

≪민주조선≫ 18일부는 미제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힘의 정책, 랭전정책에 매달리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민주조선≫ 론평의 필자는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북남대화, 화해과정을 가로 막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제이라는데 대하여 사실을 들어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의 힘의 정책, 랭전정책을 짓부셔 버리지 않으면 북남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민족자주통일의 날은 그만큼 멀어질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화국정부와 인민들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의 랭전정책, 반공화국압살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 인민들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암적존재인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와 미군기지철페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고 있다.

미제의 랭전정책을 짓부시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은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받고 있다.

북과 남이 대화를 재개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며 그것이 세계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오늘 미제가 구태의연하게 시대착오적인 힘의 정책에 매달릴 그 어떤 리유나 구실도 없다.

미국은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규탄하는 랭전정책을 버리고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8일

시

태양절 만세

태양절 태양절
빛나는 이름 그대로
새처럼 찾아온 날이여

매해 맞이하는 이날이건만
탄생 90돌 태양절이어서
심장의 울림은 이리도 벅찬거냐
노래의 진폭은 이리도 큰것이냐

주체 1년 4월 15일
날 일자 이룰 성자 존함 그대로
어버이 주석님 인간세상에
태양으로 오신 날이여

이날은 만경대 초가집 좁은 뜨락이
남해 기슭에까지 넓어진
김일성민족의 기원이여
이날은 4월의 화사한 봄빛**
식민지예속의 동토 녹아내린
선진조국의 기원이여

정녕 이날은
하느님과 물질에 놓여 있던 인간이
만경봉의 장엄한 해돋이를 우러러
운명개척의 행진을 예시한
자주시대의 시원이여

이날이 없이야
우리 삶의 근원이 있으랴
인덕으로 뜨거운 열원이 있고
광폭으로 짓밟히는 광원이 있으랴
순간에 세인을 끌어당기는
아 중심이 있으랴

그래서 이북에서는
나라의 가장 큰 **도
민족의 가장 큰 경사도
이날을 목표로 설계되고 마련되는 것인가
그 때문에 국경과 지경넘어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김일성거리, **김일성**도서관, **김일성**학급
이 행성에, 시대의 천공에
태양의 행성으로 찬란한 것인가

아 명절을 모르던 우리 겨레가
명절을 알게 한 날이여
대를 이어 태양복을 누리는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명절
태양절이여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도도히 굽이치는 수천년 역사속에
21세기가 210세기로 이어진다 하라
60여억 인구가 600억으로 증가된다 하라

흘러온 세월의 수치만큼
태양절 그 의미 더욱 깊어지리라
증가된 인구 심장의 열도만큼
태양숭배열기 더욱 고조되리라

무슨 말로 칭송하랴
위도와 경도선이 가로세로 뻗어간
지구의 표면을 원고지 삼아
저 하늘의 별들을 글자마냥 따내어
이남 민중의 진정을 터쳐
영원불멸의 송가를 새기노라

인류의 대명절
주체의 태양절
만세! 만세! 만만세!

흠모

김일성주석은 통일조선의 영원한 수령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가 ≪**김일성**주석은 통일조선의 영원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조선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령도자를 모시고 있기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것이며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통일조선의 수령으로 영생하실것이라고 썼다.

그는 자기가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나서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만나뵌 후부터였다고 하면서 진보적인류로부터 가장 걸출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 받으시는 그이를 만나뵙던 영광의 순간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주석께서 자기를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조선의 통일방안과 원칙,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이의 말씀들에서 주석께서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며 끝 없는 정력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였다고 썼다.

그는 오늘 조선의 통일위업이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조선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업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각하의 남다른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받아 온데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더 과감히 일 해나갈 결의를 피력 하였다.

조선을 방문한 몽골인민혁명당 총비서 드.이데브흐텐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인류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높은 흠모심을 표시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께서는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체류기간 나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전람관에 전시된 선물들은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존경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인민들의 높은 흠모심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각하께서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그는 계속하여 조선방문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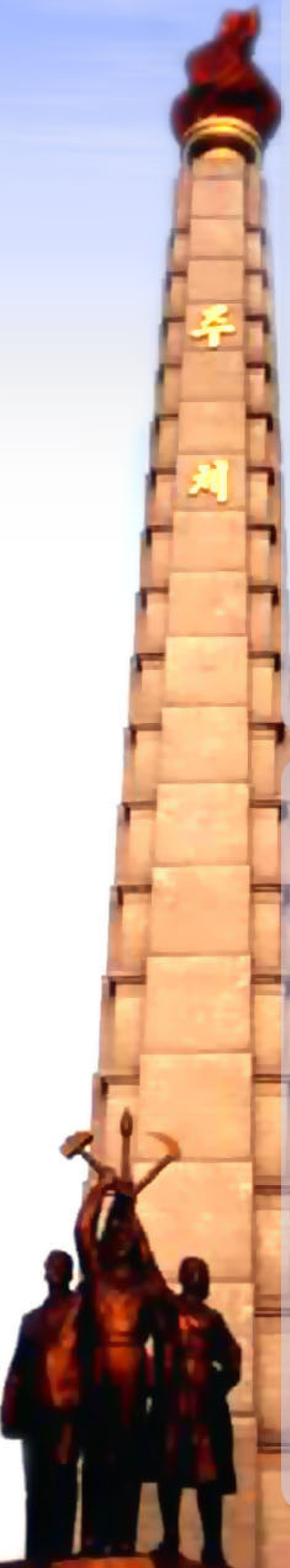
우리가 본 대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는 조선인민의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각하의 사상을 받들어 경제건설에서 힘찬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수 있었다.

조선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이다.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1)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1. 당창건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우리 당은 깊은 역사적 뿌리에서 자라난 당입니다. 우리 당이 창건된 것은 1945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오랜기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 당창건의 튼튼한 기초를 닦았으며 그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창건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러시아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 밑에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노동계급이 투쟁무대에 적극 나서게 됨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은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공산주의운동가들은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대신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말공부나 하고 영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튼튼히 꾸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파가 정통파이며 진짜 마르크스주의파라고 하면서 국제당의 승인이나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보니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운동은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은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의 탄압속에서 자기의 존재마저 오래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혁명적 당을 요구하였으며 새 형태의 혁명적 당을 창건할 성스러운 위업은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초기 공산주의자들처럼 하여서는 혁명을 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려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영도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며 이러한 신념 밑에 투쟁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선택한 새로운 혁명노선이였으며 혁명적 당건설 방침이였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자주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고 투쟁을 벌여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26년에 조직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조직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힘차게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새 형의 혁명적 당건설의 출발점으로 되었으며 바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계승하여 조직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분열책동을 극복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면서 선진적인 조직에 묶어세우고 단련시켜 당창건의 골간으로 키웠으며 광범한 반일 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 당창건의 공고한 대중적 기반을 꾸려 나갔습니다.

우리는 1930년에 역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면서 기층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벌였으며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카륜에서 결성된 당조직은 우리 당의 영광스런 시원으로 되었으며 그 후 연이어 조직된 당조직들의 원형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당조직을 모태로 하여 당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두만강 연안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 수많은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그에 대한 조직지도 체계를 세웠습니다. 당조직들이 모아지고 그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되었으며 당조직의 지도 밑에 혁명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면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전쟁인 동시에 숭고한 공산주의적 이념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였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대대적으로 키워낼 수 있었으며 공산주의대열의 통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고 당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 대오와 유격구들에 각급 당조직들을 내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북부 국경일대와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반일단체를 광범히 조직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무장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각급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당적 영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부대 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국내외 여러 지방들에 조직되어 활동하는 당조직들까지도 통일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통일적인 영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가 정연하고 서고 무장투쟁과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당적 영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지도 밑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지도 밑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의 보다 넓은 지역으로 당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특히 국내외 산업중심지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농어촌들에 기층당조직들을 많이 내오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조직들이 중요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었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당창건 준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의 전 기간에 걸쳐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운동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약점들이 극복되고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었습니다. 간고한 항일투쟁 과정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요구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을 건설하는 사업은 당창건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함이 없이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으며 설사 당을 창건한다 하더라도 그런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파멸의 운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교훈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이것을 실증하여 줍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당조직들을 내오고 당 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공산주의핵심들을 키워 당의 조직적 골간을 튼튼히 꾸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기층당조직들을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을내오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밑에 당의 기층조직들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공산주의자들을 묶어 세워 당중앙을 선포하고 점차 아랫당조직들을 내오는 방법으로 당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남을 쳐다보면서 파벌싸움과 말공부만을 일삼아 온 종파사대주의자들이였으며 그들에 의거하여서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었습니다. 혁명적 당을 창건하려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당조직생활과 혁명투쟁을 통하여 종파주의와 사대주의에

→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야 하였으며 공산주의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점차 해당 단위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급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산주의핵심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공산주의핵심이란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그 어떤 난관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립적으로 훌륭히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산주의핵심이 있어야 당의 조직적 골간을 꾸리고 공산주의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할 수 있으며 당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핵심을 키우는 가장 빠르고 혁명적인 길은 사람들을 항일무장대오에 받아들여 강고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키는 것이였습니다. 항일무장대오는 사람들을 견결한 혁명가, 공산주의핵심으로 키워내는 혁명적 단련의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항일무장대오에 받아들여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단련시킴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소유한 백절불굴의 혁명투사로,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핵심으로 키웠습니다. 혁명적 조직생활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계급적 각성이 높고 투쟁속에서 검열된 노동자, 농민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을 당조직에 받아들이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조직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가진 우수한 공산주의핵심으로, 당의 조직적 골간으로 키워내었습니다.

공산주의핵심을 키워내는데서 반일대중단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격구들과 국내외의 여러 지역들에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대중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켰으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키워낸 수많은 공산주의핵심들은 우리 당의 창건을 위한 튼튼한 골간부대로 되였습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대열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대열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 통일이 보장되는 기초 위에서만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있으며 당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당의 창건, 강화발전을 위한 근본조건이며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공산주의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지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종파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였으며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 혁명대오 안에 종파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은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과 전략전술을 튼튼히 무장시켜 공산주의대열의 사상적 일치성과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였습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꾸리는 것입니다. 대중적 기반을 꾸리는 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 속에서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가진 당만이 필승불패의 당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꾸리려면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지만 의식화, 조직화하지 못하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기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의 전 기간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의 전 시기에 수많은 정치공작원을 각지에 파견하여 군중정치사업을 널리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혁명화하였으며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묶어 세웠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그들을 투쟁을 통하여 단련시켰습니다. 실천투쟁 속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힘있는 정치적 역량으로 자라났습니다.

당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꾸리기 위한 투쟁은 반일민족통일의 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였습니다.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가 창건되었는데 이것은 당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의 기치 밑에 튼튼히 묶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조국광복회의 조직망은 급속히 확대되였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일대에는 물론 국내 깊이까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광범히 조직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은 매개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다기한 명칭으로 조직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망이 국내외의 넓은 지역으로 뻗어 나감에 따라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굳게 결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 조국광복회 조직에 뭉치어 반일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각계각층 군중에 대하여 당적 영도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기초가 튼튼히 마련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임의의 시각에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였습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 과정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창시되였습니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불멸의 혁명 업적과 투쟁경험이 이룩되었으며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창조되였습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에는 끝없이 귀중한 사상, 정신적 재보와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 발전시키는데서 튼튼한 밑천으로 되었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역사적 뿌리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에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조국이 해방된 다음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에 지체없이 달라붙었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특히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부과 남에는 판이한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북반부에서는 나라의 주인이 된 전체 인민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 조국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지만 남반부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남반부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이 가혹하게 탄압당하였으며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이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남,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다 망라하는 통일적인 당을 당장 창건하는 것은 곤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북과 남에 조성된 판이한 정세는 북과 남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명을 발전시키며 당창건사업을 추진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 북반부에서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북반부에서 당을 빨리 창건하여야 각 지방에서 조직되어 활동하는 공산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공산주의대열의 조직사상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고 건국사업을 잘하여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정렬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훈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외의 여러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때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공산주의자들만으로 당을 창건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 과정에 자라난 공산주의자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창건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름만으로 당을 조직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당을 조직하려 하였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운동은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지방에서 분산되어 활동하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단련되어 있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믿음직한 골간부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당에 받아들여 육성된 공산주의핵심들과 각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당조직들을 정비, 확대하고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조직들을 묶어세우도록 하면서 당창건준비사업을 다그쳐 나갔으며 마침내 1945년 10월 10일,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인 북조선 공산당중앙 조직위원회를 창설하고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창건을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의 탄생이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우리 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혁명의 강력한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였습니다.

(내일 계속)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 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이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7. 소사하의 가을(1)

우리는 량강구에 돌아오자 소사하에서 남만원정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까지 모두 불러다가 유격대가 창건된후 반년동안의 사업을 총화하였다. 주되는 내용은 물론 남만원정과 관련된 것이였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우리의 무장대오가 반년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고 그 과정에 유격전으로써도 능히 일제를 탕승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는 것을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우리는 그 총화회의에서 유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부대 앞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첫째, 반일인민유격대의 근거지를 왕청지구로 옮길 것이다. 둘째, 중국인항일구국군과의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전개할 것이다. 셋째, 동만일대에서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유격투쟁을 옳게 지도하며 혁명근거지창설을 다그치고 그것을 튼튼히 지켜낼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문제가운데서 제일 심각하게 론의된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활동근거지를 왕청으로 옮길데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 한가지를 안도, 연길, 화룡에서 온 군정간부들과 함께 며칠동안 내처 토의를 거듭하였다.

안도의 동무들은 활동거점을 왕청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반대하였다. 안도에서 창건된 유격대가 안도에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왕청으로 가겠는가, 유격대가 왕청으로 가고나면 안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고 하면서 난색을 지었다. 편협한 지역감정에서 탈피하지 못한 소박한 고집이였다. 그대신 연길과 화룡에서 온 동무들은 유격대의 효시이고 원종장인 안도부대가 조선사람들이 집격되어있는 간도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전략적견지에서 보나 지역적조건으로 보나 응당하고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전투력이 제일 강한 안도부대가 왕청에 가게 되면 연길, 훈춘, 화룡을 비롯한 린접현의 유격부대들의 활동에서도 큰 전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왕청이 지역적으로 ≪명당자리≫라는 것은 안도의 동무들도 다 인정하였다. 왕청은 우선 국내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좋았다. 대안의 륙읍지구는 ≪길림바람≫이 많이 들어간 고장들이여서 장차 유격투쟁에 인적, 물적 지원을 줄수 있는 믿음직한 원천지로 될 수있었다. 우리는 륙읍지구를 발판으로 하여 국내혁명을 앙양시킬수 있었다. 왕청일대의 군중들은 무장투쟁사에서 최고의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 청산리전투나 봉오골전투를 지원하는데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왕청은 북로군정서의 활동기지였고 역기에서 활동한 수백명의 독립군과 무관학교의 학생들은 다 이 지방 사람들이 가꾸어낸 오곡으로 밥을 지어먹었다. 그러나 왕청이 좋은 고장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그리로 옮겨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현에 근거지를 잡고 우리자신의 힘으로 유격투쟁을 개척해갈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국군과 같이 합법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살금살금 조선 사람부대들을 더 늘여가겠는가 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련일 토의를 심화해나갔다.

나는 구국군과의 공동행동 때문에 우리가 활동에서 좀 구속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피로써 얻어낸 반일인민유격대의 합법화를 더 공고히 하고 재만조선민족의 일제의 앞잡이도 아니고 척후병도 아니며 그네들이 친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부대는 친일이 아니라 반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우리는 결국 일정한 기간 구국군과 함께 활동하면서 유격대의 합법화를 계속 고수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실지투쟁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여 무장대오를 늘려가다가 그것이 커진 다음 서로 합류하자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런 안을 확정한 다음에는 동만의 여러 지방들에 사람들을 뽑아보냈다. 연길에도 보내고 화룡에도 훈춘에도 보내고 라자구의 구국군부대들에서도 유능한 공작원들을 여러명 파견하였다. 왕청에는 별동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들여보냈다. 김일룡은 안도에 떨궈두었다. 백수십명에 달했던 우리 부대는 또다시 40명선으로 줄어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부대를 털어서 다른 현들에 사람들을 자주 보내게 되자 동만특위는 간부들도 만족해하였다. 그들은 우리부대가 기본부대이니만치 쫄쫄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다른 지방의 유격부대들을 보강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우리 부대가 소사하를 떠나 남만원정의 길에 오르던 그 때로부터 넉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량강구의 강화와 산야에는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게 가을빛이 짙어갔다. 밤을 자고나면 여기저기에 락엽이 깔리고 그 우에 서리가 내려 미구에 닥쳐올 대륙의 사나운 겨울을 예고해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지니 은근히 병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생각뿐이였지 소사하에 다녀올 엄두는 내지 못하였다. 나는 토기점골을 다녀오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상봉을 계속 뒤로 미루었다. 북만으로 출발할 날짜가 박두해오자 차광수는 나에게 어디서 구해들었는지 알 수 없는 쳡약꾸레미를 가져다주면서 토기점골에 다녀오라고 권고하였다. 내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김성주답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대장이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말도 걸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는 소사하로 떠나게 되었다. 쳡약을 들고 가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어머니가 이 약을 보시면 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고 꾸짖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차광수가 구해보내는 약이라고 하면 어머니도 기뻐하실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내가 소사하에 있을 때 사가지고 간 좁쌀 한말은 벌써 거덜이 난지도 오랬을 것이였다. 어머니가 일을 못하시는 형편이니 지금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지. 어머니는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셈치고 집생각을 말라고 오금을 박았지만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동생들을 잊고 집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였다.

그리 무겁지도 않은 쳡약꾸레미를 들고 덜렁덜렁 집으로 찾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어째서인지 소사하가 가까워지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였다. 어머니의 병이 혹시 더 도지지나 않았을가 하는 불안도 불안이지만 제일 께름직한 것은 량사령과의 합작을 완전히 성사시키지 못한 채 남만에서 돌아온 사실이였다. 어머니가 알면 못내 섭섭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중환에 계시면서도 나의 남만행을 그토록 독촉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과 합작을 하러 간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고 대견해서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주의 만 따지면서 독립운동의 선배들과 등을 돌려대고 지내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병세가 어떤가하는 것이였다. 맹물같은 미음조차 잘 삭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갔으니 그 사이 차도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중태에 빠져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지나 않겠는지 나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쉽게 가늠할 수가 없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가슴을 조이는 불안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토기점골의 낯익은 외나무다리를 건느면서도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내가 그 외나무다리를 건늘 때면 매번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문을 열어젖히군 했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그것이 몇 번째 아들인가를 가려내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만은 예상외로 열리지 않았고 굴뚝에 저녁밥을 짓는 연기도 오르지 않았으며 땔나무나 구정물버치를 들고 부엌문으로 들락날락하는 동생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의 피가 일시에 얼어드는 것 같은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며 가까스로 문고리를 잡아당기었다. 그리고 문을 열기 바쁘게 토방돌우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 하였다. 어머니의 침상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여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만 걸음이 늦었구나 하는 후회가 번개같이 머리를 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철주가 소리없이 다가와 내 어깨에 왈칵 매여달리였다.

≪형, 왜 인제야 오우?≫

신문 ≪새날≫을 배포하시는 강반석 여사

→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보좌하시기 위해 망을 보시는 강반석여사

동생은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나의 가슴에 마구 비비였다. 그리고는 목갈린 소리로 어린애들처럼 엉엉 울었다. 이번에는 영주동생이 돌덩이처럼 난데없이 날아들어 나의 왼쪽옆구리에 매여달리였다.

나는 토방돌우에 쳡약꾸레미를 떨어뜨리며 통곡하는 두 동생을 으스러지게 그러안았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죄다 설명해주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생사여부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어쩌면 내가 없을 때에 이런 불행이 생길수 있단 말인가. 림종의 마지막순간에 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모성의 마지막 행복마저 우리 어머니에게는 차례질 수 없었던 말인가, 가난속에 태어나 일생을 가난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수난당한 내 나라의 비운을 생각하며 남편이 희생앞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던 나의 어머니,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 온 넋과 육신을 깡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 아들이 사사로운 인정에 빠져서 큰일을 그르칠가봐 늘 념려하시더니 혁명하는 아들에게 짐이 된다고 어머니는 그렇게도 서둘러 눈을 감으신 것이나 아닌가.

나는 이전날 어머니가 나를 마지막으로 훈계하실 때 잡고 계신던 그 문설주를 손으로 쓸어만지며 설사 그때보다 더 엄한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문앞에서 살아계실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볼 수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철주야,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없었니?≫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사립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선 김씨녀인이 철주를 대신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나보고 이런말을 했다우.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아들 성주가 오거든 내가 대하듯 해주세요. 왜놈들이 살아있고 조선을 독립하지 못한채 오거든 내 무덤을 파가지도 못하게 해야 해요. 아니, 문전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성주는 싸우다가 그저 돌아오지는 않을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고는 나더러 문을 열어달라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저기 외나무다리가 있는 쪽을 바라보더구만.≫

김씨녀인의 말은 먼 ≪하늘나라≫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리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매 말마디가 안고 있은 심오하고도 비통한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죄다 똑똑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나는 두 동생을 부여안은채 외나무다리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의 심정,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채 영면하는 순간의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상상의 대문에 들어서기도전에 오열이 급작스레 폭발하였다.

한창 울다가 고개를 쳐드니 김씨녀인이 눈물어린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부드럽고 사려깊었던지 나는 하마터면 어머니의 눈이라고 착각할 뻔하였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속에서도 잠시나마 리성을 되찾고 마지막순간까지 어머니의 길동무가 되어준 김씨녀인에게 감사를 드리었다.

그러자 김씨녀인은 더 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겠소. 나는 자주 와보지 못했소.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다나니 어머니의 곁에는 머리를 빗어드릴 사람도 없었다우. 아우들도 혁명사업을 하느라고 집에 붙어있지 못했소. 어느날 어머니는 나보고 사내아이들모양으로 머리를 빡빡 깎아달라구 하지 않겠소. 머리가 가렵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부탁을 받고도 차마 가위질을 할 수가 없었소. 어머니의 머리야 얼마나 소담하고 칠칠했소. 내가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소원대로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소. 머리만 가렵지 않으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구. 그래서 그 아까운 머리를....≫

김씨녀인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소리를 내여 울었다.

나는 차라리 그 말을 듣지 말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 비통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오장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것 같았다. 일생을 바쳐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해오신 어머니인데 그 품에서 자라난 자식들에게는 림종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곁에서 머리를 빗어드릴 효성마저 없었단 말인가.

나는 전에 무송에서 살 때 내 나이 또래의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업고 남전자에서부터 소남문거리까지 땀을 철철 흘리며 걸어와 의원을 찾느라고 애쓰던 광경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그 소년을 보면서 효자라고 하였다. 김씨녀인의 말을 듣고나서 어쩐지 땀을 철철 흘리던 그 소년이 모습이 불쑥 떠올랐다.

그 아이에 비하면 나는 불효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도처에 스무살이 넘을 때까지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적에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아랫목도 권하고 우물터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의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드리기도 하였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일손을 돕는다고 하면서 닭모이도 주고 초롱으로 물을 퍼다 드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혁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별로 없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고 한 옛 사람들의 말은 바로 나를 념두에 두고 지어낸 명제인지도 모르겠다. 올리사랑이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현명한 말이다. 섬기고 모신 자식들에게 바치는 부모들이 사랑을 릉가하는 그런 효성으로 부모들을 섬기고 모신 자식들이 있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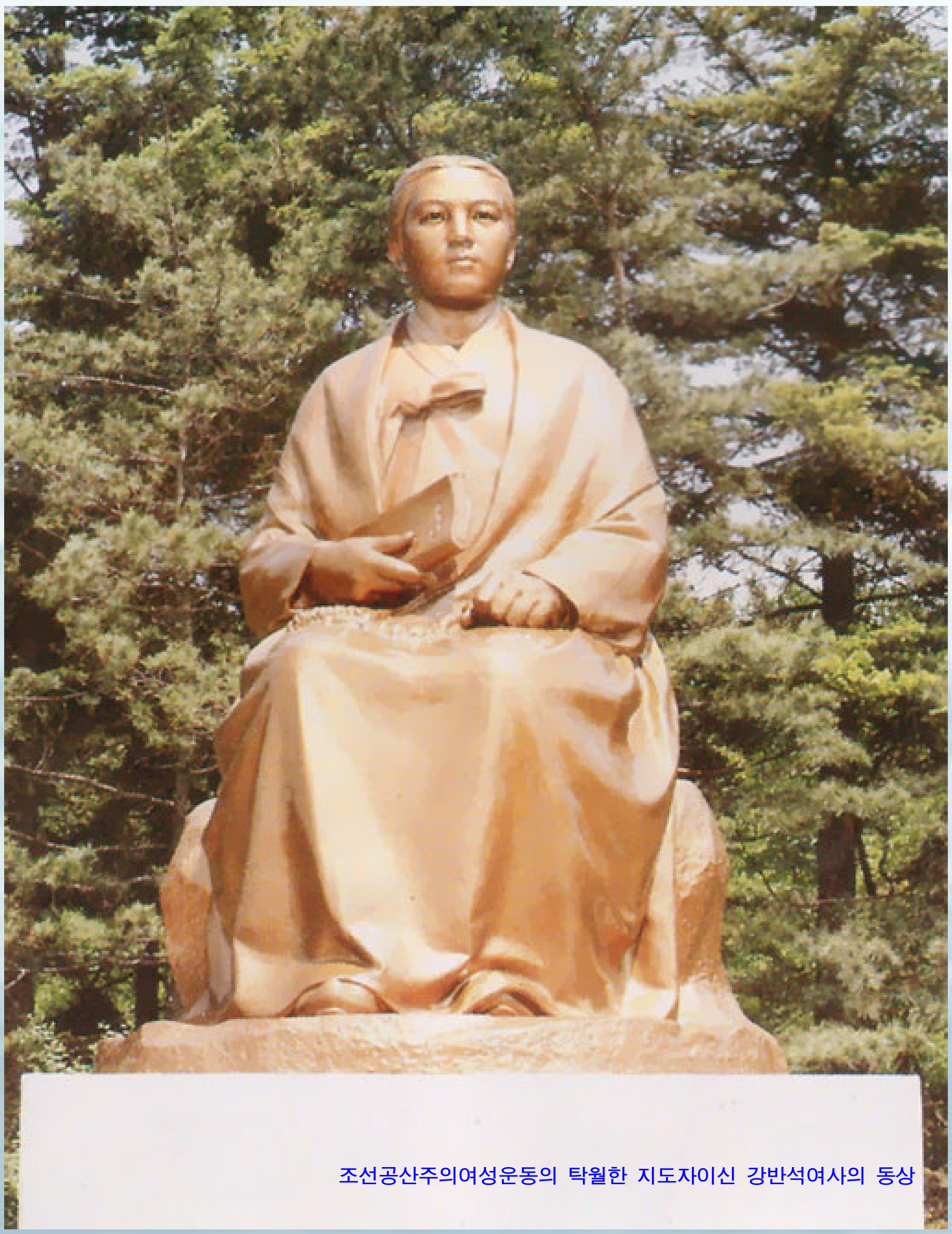
≪철주야,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남긴 말씀은 없었니?≫

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유언중에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철주에게 또 물었다.

철주는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지르고 목쉰 소리로 대답했다. ≪형을 잘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을 잘 도와드리구 형과 같은 혁명가가 되면 지하에 가서도 편히 잠들 수 있다구.≫

그러고보면 어머니의 모든 정신력은 마지막순간에도 오직 혁명 하나만을 위해 소모된 것이었다.

나는 동생들을 데리구 그달음으로 어머니의 묘소에 찾아갔다. (내일 계속)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여사의 동상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2)

로동신문 정론 - 주체91, 4월 17일

수령이 지닌 호칭에는 인민의 마음이 비끼고 사회의 참모습이 비낀다.

인민의 어버이,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인민이 피로써 결합된 혼연일체의 심원한 진리가 담겨 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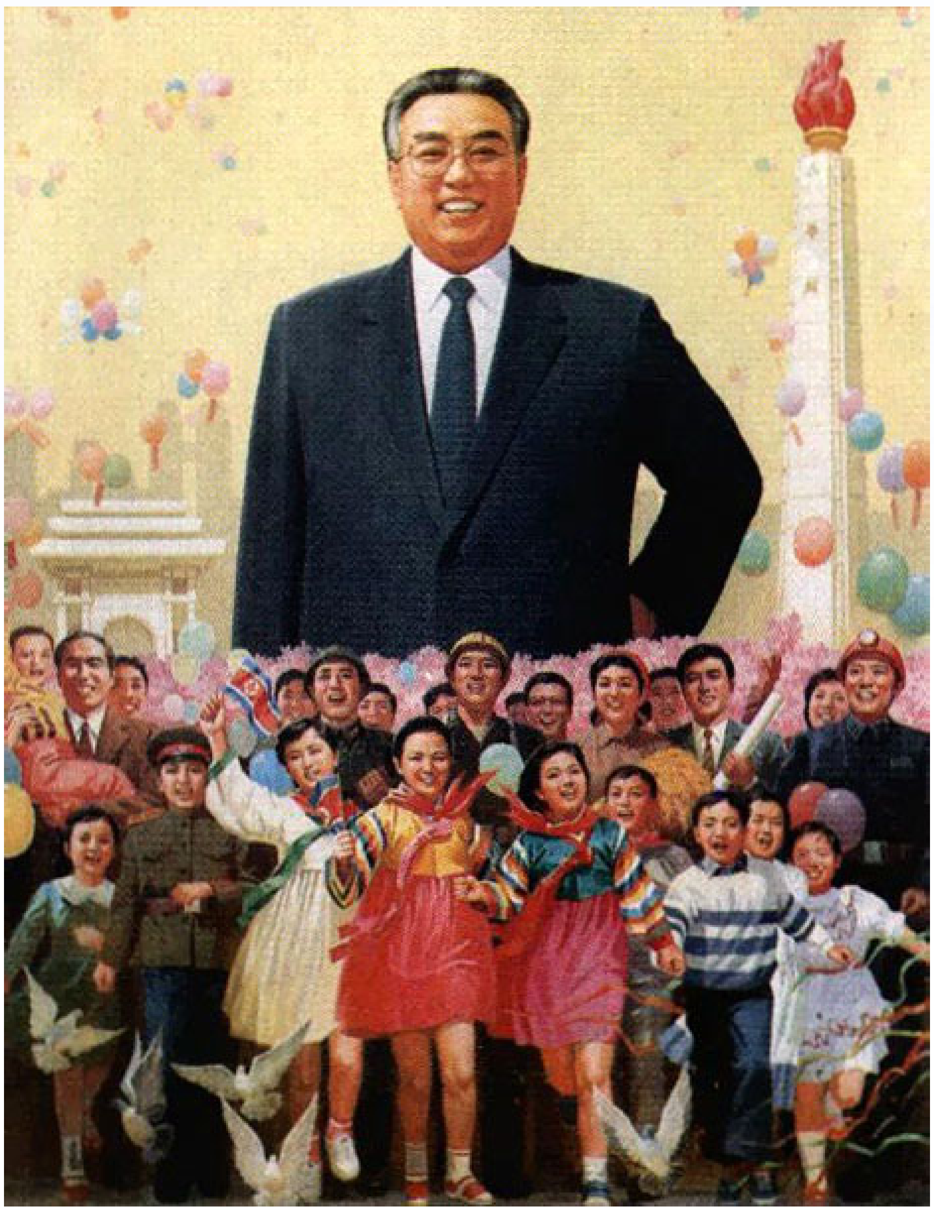
여기에서 자기의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이 빛발쳐 나오고 수령과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력사의 만난을 맞받아 헤쳐 나가는 영웅조선의 기상이 폭풍쳐 나온다.

너와 나가 하나의 뜻과 정으로 결합되는데 한 나라가 한식솔로 되는 참다운 의미가 있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모두가 령도자를 어버이로 부르며 따르는데 일심단결의 숭고한 원리와 위력이 있다.

참으로 신성하고도 숭고한 칭호는 피어린 체험속에 나온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한지붕아래서 저마끔 제 잘 났다고 이리 치고 저리 맞으며 피운 소란으로 대들보와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마저 벗겨 져 침략의 불소나기를 고스란히 들쓰면서 갖은 수난과 치욕을 맥없이 당하기만 해야 했던 우리 인민, 참다운 단결의 중심이 없었던 탓에 서로의 당파적리익과 인기추구에 혈안이 된 가짜혁명가들에 의해 이국의 강기슭에 치욕의 류혈참극을 펼쳐야 했고 뭉칠데가 없어 제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 져 저 하나의 생존에 급급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였다.

민족을 지키고 이끌어 줄 수령이 없어 짓밟힐대로 짓밟혀 오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태양으로 모심으로써 하나의 혁명대오, 긍지 높은 **김일성**민족이 되였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눈물겨운 사랑이 우리 력사의 갈피에 너무도 진하게 새겨 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7월의 어느 날 렬차를 타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도의 한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도의 어느 한 지하건늠길건설의 진척정형과 애로되는 문제를 상세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 나서 옥류관, 선교각, 모란각 이렇게 평양시안에 있는 조선식건물로 된 식당이름들을 하나하나 꼽아 나가시던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각의 이름을 다른것으로 고쳐야 하겠다고 세심히 이르시였다.

바로 이때 그 일군이 들고 있는 수화기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치는 소리가 얼핏 들려 왔다. 분명 식사를 하시다말고 전화를 거신것이였다.

인민들의 생활을 두고 머나먼 북방땅에서 식사시간까지 아끼시며 전화를 걸어 주실 때 우리가 따뜻한 방안에서 마주했던 식탁이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한순간한순간을 쪼개시며 마련해 주신 행복인줄 우리 알기나 했던가. 인민들이 그토록 뜨겁게 안녕과 건강을 바라며 탁상시계에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라는 노래도 넣어 시간이 되면 간절히 울리도록 해드렸건만 오히려 그것을 인민의 고무, 기대로 여기시며 더욱 높은 책임감과 왕성한 정력에 넘쳐 ≪인민행렬차≫를 몰아 가신줄 알기나 했던가.

장구하고도 시련에 찬 조선혁명사, 수령과 인민이 사랑과 충성을 피처럼 나누며 승리와 번영의 길을 열어 온 조선혁명사의 거세찬 흐름에서 인민의 어버이라는 말이 수령칭송의 위대한 호칭으로 울려 나온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사랑의 이야기를 어찌 천이나 만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사색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이였고 활동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이였던 우리 수령님의 불 같은 한평생,

언제인가 터갈라 진 금수산의사당구내를 다시 포장한다는것을 아시고 년로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그처럼 대노하실줄 어찌 알았으랴.

외국수반들이 나를 만나러 오지 포장도로를 보러 오지는 않는다, 나의 기쁨은 인민의 행복속에 있다, 인민이 불편을 느끼면 마음이 좋지 않고 승용차도 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논두렁길도 걷는다, 동무들이 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어느 산간마을의 학교길이라도 포장할것이다.

국가수반들이 여생의 호화로운 휴식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것이 정치계에서는 너무도 례사로운 일로 되고 있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귀중하시여 이른 새벽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고 록음자료 같은것도 산책을 하시며 들으시고 리발을 하시며 들으시고 식사를 하시며 들으신 그런 일, 금나락 설레이는 들판에서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를 들으실 때면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고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신 그런 모습은 오직 우리의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 더없이 숭고한 정치화폭이다.

이 세상 많은 정치가들이 자기 조국과 인민을 두고 우리 조국이라고, 우리 인민이라고 불러 왔고 제딴에는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느라, 민족의 수난을 가시느라 고심도 많이 하고 투쟁도 많이 벌려 왔다. 그러나 인민들로부터 어버이라는 말을 듣기는 결코 헐치 않으며 인민의 심장우에 떠받들려 인민대중의 뇌수로 되고 인민대중과 하나의 유기체로 융합되기는 더욱 힘들다.

자기의 수령을 친부모를 부르듯이 어버이라는 말과 함께 부르고 우러르며 따르게 된 여기에 우리 인민이 도달한 행복과 영광의 고상함이 있고 신념과 의리의 고결함이 있으며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대함이 있는것이다.

인민의 어버이,

이는 가장 진실하고도 아름다운 수령영생의 노래이다. 뜻 깊은 4월의 이 강산에 더더욱 절절하게 울리는 이 부름을 정 깊게 외워 보느라면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고도 거룩한 영상이 생생히 어려 온다.

우리 수령님의 생의 순간순간은 곧 전진하는 혁명의 한걸음한걸음이였고 높아 가는 인민의 행복의 한치한치였다. 그 한초한초에 실린 조국과 인민의 운명, 인류의 미래를 안으시고 잠도 휴식도 때식도 뒤로 미루시며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 그 사랑,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선군혁명 천만리를 헤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이 땅우에 더더욱 줄기차게 흐르고 이 나라 인민들의 운명마다에 뜨겁게 스며 들고 있다. 생존시에 그토록 존경스럽고 다정하던 위인도 세상을 떠나면 인민의 기억속에서 희미해 지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친근감에 넘치던 호칭도 사라져 버리는것을 력사는 많이도 보아 왔다.

인민의 어버이라는 이 위대한 칭호는 광란하는 피눈물의 바다도 삼켜 버릴수 없었고 세월의 폭풍도 앗아 갈수 없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숭고한 그 부름은 더욱 절절히, 더욱 열렬히 인민의 심장에서 울려 나왔다. 위대한 그 부름은 피눈물의 바다에서도,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진군길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울렸다.

어버이수령님, 이 부름은 어버이장군님이라는 또 하나의 숭배와 신념의 부름과 함께 선군시대를 세차게 진감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인민옹호의 사상과 인민사랑을 천백배로 꽃 피우고 빛내이시는 백두의 령장 **김정일**동지의 모습에서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보고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절감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품에 안아 수령님 가리키신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억세게 이끌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이께서 추켜 드신 선군혁명의 기치를 따라 시련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한자욱한자욱, 강성번영의 길을 열며 한자욱한자욱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긴것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받아 안은 사랑에 대한 한없는 소중함이고 어버이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의 사랑 영원하다는것이다.

제국주의원쑤들의 발악을 짓부시고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도 짓뭉개며 력사의 기적을 펼쳐 가는 혼연일체의 거세찬 흐름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원한 단결의 중심으로,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빛나고 계신다.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도 영생의 모습이다.

이 나라 곳곳에 솟아 빛나는 구호도 영생의 구호이며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깊이 체득하며 구현해 나가는 혁명사상도 영생불멸의 사상이다.

선군시대와 더불어 강성하는 조국의 력사도 영생의 력사이다.

이 모든것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 영생을 확증하는 징표의 하나가 바로 인민의 어버이라는 숭엄한 부름이다.

오늘도 선군조선 꽃다발우에 랑랑히 울리는 인민의 어버이라는 그 부름은 력사와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수령영생찬가이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이라는 말을 어버이장군님이라는 말과 함께 심장으로 높이 부르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유구한 인류력사와 오늘의 세계에 한 나라 인민이 대를 이어, 세기를 이어 자기의 령도자를 어버이라는 호칭으로 열렬히 흠모하고 신뢰하며 따르는것은 얼마나 크나큰 민족의 영광이고 행운인가.

이토록 크나큰 긍지와 행복을 안고 오늘도 우리 인민은 다함 없는 그리움과 불 타는 충성의 맹세를 담아 뜨겁게 목 메여 부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어버이이시라고.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2회 - 학사 김창호 선생 주체91, 4월 18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 밀영에서 탄생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기본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 밀영에서 탄생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우리 민족의 대경사로, 인류의 공동의 최대 명절로 성대히 경축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모신데 이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넘쳐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생활의 기쁨과 낭만을 담아서 즐겁게 맞이해온 명절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중에 가장 큰 명절, 소중한 명절중에 최고 소중한 명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경사의 날인 2월 16일입니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이야말로 민족의 행운이 내린 명절, 인류의 참다운 행복을 꽃피워 주는 명절입니다. 우리들은 이날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축복을 드리며 장군님께서 이날 하루만이라도 만민의 축복속에 편히 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래며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성스러운 60성상의 추억속에 맞이하는 경애하는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를 비롯해서

각 부분 예술공연이 진행되고 백두밀영 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16경축 중앙보고대회, 216경축 백두산밀영결의대회, 혁명의 성산 백두산 해돋이사진 전시회들을 비롯해서 여러 경축모임들이 진행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이 활짝 피운 1만4천3백여상의 태양의 꽃들로 황홀한 대화원을 펼치고 연일 대성황을 이룬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는 전례없이 큰 규모의 꽃무대를 펼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존경심과 흠모심도 그 어느때보다도 더 높아갔습니다. 그것은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진행한 세계 여러나라들에서의 경축행사만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216경축행사들이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정부, 정당, 단체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대 성황리에 진행되였는데 여기에 140여개의 정당지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40여개 나라에서 노작출판 및 토론회들이 진행되였고 60여개 나라에서 360여회의 경축집회와 모임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체스코 등 50여개 나라들에서 500여회의 영화감상회 사진 및 우표 전시회가 진행되였고 기네, 이란 등 60여개 나라의 250여종의 출판보도물이 370여회에 걸쳐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참으로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류의 존경심과 흠모심이 대륙과 대륙에 끝없이 울려퍼지였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 밀영에서 탄생하신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귀틀집에서 민족의 태양이시고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아드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백두산 밀영은 주체19(1930)년도 후반기부터 주체29(1940)년대 전반기까지 항일대전의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던 조선혁명의 책원지였고 영도의 거점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광명성으로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실 당시는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볼때 이 시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일제 침략자들에 대한 최후공격작전을 준비하고 수많은 소부대와 소조, 정치공작원들이 국내 여러곳에 파견돼 가지고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 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 범위에서는 세계재패야망을 품고 침략전쟁의 길로 나섰던 파쑈도이칠란드와 일본제국주의가 자주성을 지향해서 일떠선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조정의 산이고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기틀집에서 민족의 향도성, 21세기를 이끄실 인류의 태양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을 민족의 대경사, 인류의 대경사로 맞이했습니다. 아버님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어머님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열한 전장에서 민족의 향도성으로 태어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들도 무한한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그이의 탄생을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럼 당시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복해 드렸겠습니까. 그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탄생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갈 자재분이 춘출영마타고 백두산에 내렸다고 환성을 부치면서 미래의 태양, 세계의 태양으로 맞이하고 축복했습니다. 특히,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자 그이를 백두광명성이라고 존대해서 부르면서 백두밀영 주변의 나무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 곳곳의 나무들에 그이의 탄생과 관련한 구호들을 써놓았습니다. 백두광명성이라는 말은 백두산의 밝은 빛을 뿌리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항일혁명투사들이 써놓은 구호들은 오늘도 귀중한 역사자료로써 고증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호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써놓은 구호문헌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

≪동포 보느냐 듣느냐 백두산의 김대장 뜻이을 광명서 솟았다.≫

≪오천년 역사국에 광명미래 상징 백두광명성 백두산에 출현.≫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독립조선의 대통운.≫

이 구호문헌들은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구호 문헌 중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몇가지 구호문헌을 통해서도 그때 항일혁명투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이 나라 이 땅을 밝게 비쳐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을 하늘, 땅도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 자료도 있습니다. 관측자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동안 백두산 밀영지구의 기상상태는 2월에 영하 40도를 오르내리고 눈보라가 세찬 것이 보통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이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만은 전날까지 세차게 일던 눈보라가 멎고 신비스러운 정도로 아늑한 정적이 깃들었습니다. 이날은 백두산지구만이 아니라 평양과 신의주, 서울과 제주도 남쪽 해상의 마라도에 이르기까지 온 삼천리 강토가 맑게 개였습니다. 이 자연의 조화를 놓고 우리 인민들은 정말 경애하는 장군님은 천기를 타고 탄생하신 위인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위인들은 탄생부터가 남달랐다고 했지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처럼 그런 천출위인의 탄생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 고향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은 백두산이고, 백두산밀영에 있는 귀틀집은 그이의 고향집입니다. 백두산밀영 고향집은 우리니라 북부 양강도 삼지연군에 있는 소백수골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백수골을 따라 내려가면 해돋이바위, 용마바위, 장군바위가 솟아있는데 용마바위 맞은편에 정일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 봉우리에 흰 화강석에 붉은 글자로 정일봉이라고 정중히 새겨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은 정일봉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일봉 아래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 밀영 고향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고향집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백두산의 아들, 민족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 집에서 어머님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지으신 강낭죽과 백두산의 산나물을 달게 드시면서, 그리고 어머님께서 혁명군 군복을 줄여서 지으신 옷을 입으시고 백두산의 눈보라 소리, 항일성전의 총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우리 장군님의 담을 키워주고 빨치산의 아들로 성장시켜준 요람입니다.

오늘 백두산밀영 고향집으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찾아오는 우리 인민들과 남조선 인민들, 해외동포들, 외국의 수많은 벗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께서 탄생한 백두산밀영은 지금으로부터 15전인 주체76(1987)년 2월 11일에 개용되였습니다. 백두산밀영이 개용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찾은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의 수는 무려 350여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를 하신 주체88(1999)년 3월 이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찾았는데 그 수는 80여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흠모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들과 진보적 인류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보신것처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조정의 산이고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기틀집에서 민족의 향도성, 21세기를 이끄실 인류의 태양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인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족만대의 재보

국제친선전람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민족사와 인류사에 쌓으신 크나큰 업적과 탁월한 영도업적 그리고 고매한 덕망으로 해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받으셨는데요.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에 바로 그 진귀한 선물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하죠.

≪민족만대의 재보≫ 퇴직교수 이문송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꿈에도 그리던 이북을 방문한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지금도 명상에 잠길 때면 이북 방문기간에 보고 느낀 모든 것에 대해 떠올려보곤 한다. 그것은 내가 북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도 컸던 탓이라 하겠다.

수십년세월 이북에 대해 왜곡된 선전만을 들어온 나로써는 참말 이북의 현실이 놀랍기만 했다. 그중에서도 지금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이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대한 참관이다.

내가 지금에 와서 붓을 든 이유도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받은 벅찬 감동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충동에서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은 만대를 두고 기리 전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재보라는 것이다. 아니, 온 인류의 영원한 재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나는 세계의 유명짜한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과 마르세유궁전 등 수많은 곳을 보아왔지만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은 비할바가 못된다고 생각한다.

묘향산의 절묘한 수림속에 청기와를 이고 나래치는 듯한 웅장화려한 자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시멘트와 천연화강석으로 옥석건물인양 생생하게 **성을 살린 건축술이야말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20세기 우리 민족 건축의 대표작이라 해야 할 것이다.

내용면에서 볼때도 국제친선전람관은 세계의 유일한 보물급이다.

전람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저명한 인사들이 올린 21만4000여점에 달하는 진귀한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매선물들을 1분씩만 돌아보아도 1년반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한다. 또 그 하나하나가 유심히 스쳐보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값진 것들이다.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외국인은 그 값들을 계산해보다가 너무 엄청나 단념하고 말았고 어떤 사람은 국제친선전람관에 진열된 선물의 가치만으로도 온 인류의 마음을 통째로 사고도 남는다고 하였다.

물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주의 사고방식이지만 이는 국제친선전람관 참관에서 받은 충격에 대한 나름의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사실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은 하나의 작은 세계의 축소판이였다.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은 다 가져다놓은 듯 싶었다. 이 전람관에 세계가 있었다.

아시아관을 돌아보노라면 아시아대륙을 일주하는 듯한 생각에 빠지고 아프리카, 아메리카관을 둘러보노라면 어느덧 아프리카, 아메리카대륙을 여행하는 듯한 **에 빠져드는 것이 참관 당시의 나의 심정이였다.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나의 심정은 세계를 발견하고 둘러본 기분이였다.

참관과정에 받은 감동은 그 진귀함과 황홀경, 방대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물들마다에 깃들어 있는 뜻과 내용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숭엄한 감정에 젖어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주석님과 영수님을 인류의 태양, 자주시대의 태양으로 형상하고 그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수령으로 모시고 싶은 소망이 담긴 선물이다. 그분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20, 21세기의 걸출한 위인으로 높이 칭송한 것을 비롯해 그 감동적 사실자료들을 소개하자면 끝이 없다.

몇가지 사실만봐도 자기 족을 태양족으로 고친 나이지리아에서는 주석님께서 태양족 족장칭호를 수여하고 족장의자를 정성껏 만들어 올렸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주석님과 영수님의 건강과 장수를 축원하여 자기 나라에서 장수의 상징으로 되고 있는 복숭아를 진귀한 옥돌을 가공해 형상하여 주석님과 영수님께 드렸다.

마다가스까르대통령은 자기 나라의 국보일뿐 아니라 인류의 재보라고 할 수 있는 5억년간의 커다란 ***화석을 주석님께 올렸다. 세계에서 제일 큰 상아도 바로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된 선물들은 비단 친북적인 나라나 인사들만이 보낸 것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이북과 가장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과 반북인물들이 보내온 것들도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철저한 반공반북 인물로 알려진 일본의 가네마루씨는 주석님을 뵈옵고 자신이 ***신이 되겠다며 **공예와 공예 주체사상탑을 성의껏 마련해 주석님께 올린 사실과 일본의 수많은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자기나라의 숭배의 상징으로 되고 있는 잉어를 형상한 선물 등을 올린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과 전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김정일**영수님께 올린 진귀한 선물들도 있다. 이같은 사실만으로도 사상과 정견, 신앙과 적대관계를 초월해 인류의 선망을 모으고 계시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위인상을 새삼 절감케 해준다.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사람치고 그 방대함과 진귀함, 황홀함은 물론 위인흠모의 세계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전람관을 참관하고 남겼다는 한 외국인의 기록이 생각난다.

≪모르고 살았다. 보고 알았다. 알고 살자. 알고 말하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참관해보지 않고서는 그 감동의 세계를 다 알 수 없다. 또 그 감동의 세계를 글로써는 다 표현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이야말로 위인들에 의해 빛나고 있는 민족의 존엄이며 민족만대의 국보일뿐 아니라 인류의 가장 고귀한 재보라는 그것이다.

진열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삼가올린 선물

수수천년 대국들의 속국으로 온갖 치욕을 겪으며 진상품마련에 등골이 휘어야했던 우리 민족이 절세의 위인들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을 모셔 세계가 선물을 안고 오는 존엄높은 민족으로 되였다.

이것은 수령이 위대해야 나라도, 민중도, 민족도 위대해진다는 말의 참뜻을 그대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참말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일을 맞으며 기원하고 싶은 것은 그 진귀한 보물들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민족의 영원한 재보로 고스란히 남겨주신 주석님과 영수님의 숭고한 애국심이시다. 동서고금 인류사나 위인전들의 갈피를 들춰봐도 주석님과 영수님처럼 세계를 상대로 그처럼 많은 진귀한 선물들을 받은 이도 없거니와 받은 선물을 하나도 쓰지 않고 민족의 재보로, 국보로 남겨준 예는 더더욱 없는 줄로 안다.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이야말로 세계적인 선망을 받고 계시는 주석님과 영수님의 위인상과 숭고한 애국심이 낳은 민족만대의 재보이며 위인칭송의 결정체이다.

나는 민족의 존엄으로 빛나는 민족만대의 재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께 온 이남 민중의 마음을 담아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글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5~16일

자유인으로 살것인가, 노예로 살것인가

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결의대회

≪우리는 지금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이 18일 낮 12시 여의도 삼환까뮤 앞에서 개최한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보고 및 투쟁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근수 상임의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화를 위한 일반적인 투쟁은 물론, 노동자를 위한 생존권 투쟁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는 곧 ≪민주화를 가로막고, 노동인권을 부정한다는 의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근수 상임의장은 이어 ≪이 투쟁이 민주화와 노동인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규탄연설에 나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정부는 누굴 위한 테러 예방이고,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미국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결국 ≪우리가 주장하고 확보하는 만큼 우리의 인권은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GM사의 경영간섭 반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전병덕(대우자판) 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다른 나라의 주권, 경제주권, 경제적 이익을 모두 빼앗고 있다≫며 ≪미국은 한미투자협정에 이어 매국정권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테러방지법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고 미국과 현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외에도 민가협 임기란 전상임의장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결의대회에 참석해 규탄연설에 나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임기란 전상임의장은 지난달 19일 김덕규 사회단체 대표들이 민주당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제2의 IMF가 오고, 월드컵도 치루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맞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진행된 단식농성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박유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4일간의 단식농성기간 동안 민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단식농성 참여와 연대방문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의 통과를 일단 저지할 수 있었지만 아직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투쟁의 줄을 놓지 말고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대우자판 노동자들과 공동투쟁 소속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결의대회는 홍순석(한청) 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이광렬(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이후 투쟁 계획과 관련, ≪오는 22일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 다음주 중에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위원회의 일정은 확인할 수 없어 정세를 좀더 보고 국회 상황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에 상정되어 있으나 정보위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 법안 제정에서 한발 물러선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18

오월 시민법정에서 미국 책임 단죄

≪미국심판 5.18 시민법정 광주지역 추진위≫ 발족

80년 광주학살의 배후자로 지목돼 오던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시민법정≫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지역 추진위원회가 18일 발족과 동시에 ≪5월 18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시민법정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심판하는 5.18시민법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윤영규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월 시민법정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5월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해결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 저녁7시 광주 YMCA 백제실에서 5.18기념재단 이광우 이사장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 발대식에 참석한 이광우 이사장은 ≪인간은 자기 이웃과 더 가까이는 형제끼리도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없을 만큼 미련한 구석이 있다≫며 ≪80년 광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0년 오월 미국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5월 정신은 미국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그 의미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대식에서는 추진위 결성 과정과 시민법정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있었다.

추진위 이신 사무처장은 ≪명예회복과 성역화 사업은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오월 시민법정은 오월 학살의 미국의 책임을 단죄하고 진상규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시민법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법정을 시작으로 추진위는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미국의 인권단체 등과 연대해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기소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300여 명의 추진위원을 모집한 상태이며 부산 등 지역 추진위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렬 통일연대 공동대표, 윤영규 광주추진위 상임대표 등 6명의 공동대표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민법정 피고인으로 카터 행정부, 홀부르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워컴 주한미군사령관,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 등을 법정에 세운다.

증인으로는 항쟁 지도부 중 1명, 부상자 등 당시 항쟁에 참여한 인물들이 나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할 계획이다.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 등의 변호인들은 미국측의 논리를 실질적으로 변호한다.

추진위는 ≪시민법정의 원고가 전 민족이라는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을 상대로 ≪기소장 접수운동≫을 전개하고 ≪5.18시민법정 헌장≫을 제정해 사실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관기자
오마이뉴스 2002/04/19

박정희 기념관에는 땅 한평도 줄 수 없다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공사 현장은 50여명의 낯선 발길로 분주해 지기 시작했다. 18일 교수들의 기념관 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박정희 기념관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항의집회를 계획했기 때문이다.

국민연대 이관복 상임공동대표는 ≪국민 여론에 부딪혀 기념관 기공식을 미뤄오더니 결국엔 아무도 모르게 착공을 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울역 앞 염천교 밑의 거지들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지만 일본 천황에게 혈서를 쓴 박정희 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성씨는 의문사 후 28년이 지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떠올렸다. 하물며 그 기념관을 세우는 일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일본군 장교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결사 저지 할 것≫이라며 ≪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 직을 버리고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행사가 끝난 뒤 국민연대 곽태영 상임공동대표는 칼로 손가락을 베고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란 제목의 혈서를 쓰기도 했다.

김재중기자
디지털말 2002/04/18

교육 절반의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열려

≪덕성여대, 경문대, 상지대, 한국외대, 상문고,…≫

이들 학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유형은 다를지라도 학내 분규로 한 차례 정도는 몸살을 앓은 바 있는 사립학교이라는 점이다. 또 이러한 학내 불협화음은 현 ≪사립 학교법≫이 한몫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요구는 시민교육단체들이 모여 2000년, ≪부패사학척결과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 이들은 지난 총선 때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에 앞장 선 국회의원 낙선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작년 6월에는 대규모 시위와 한나라당 앞 농성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현재도 국민운동본부는 60여일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7일, 덕성여대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마련, 현행법의 문제와 이로 인한 현 사립학교의 실태, 이후 활동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노조, 강사노조, 학부모회, 교육학생연대를 비롯한 교육 관련 각계각층에서 한데 모여 의미를 더해줬다.

99년 개정된 사립 학교법에 대해서 교육학생연대 김나영 정책위원은 ≪90년 이후 사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학원 운영을 자율화, 99년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 완화 △구재단 복귀 가능성 확대 △등록금 책정 자율권 등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은 곧 신자유주의 정책에 휘둘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정책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교의 공정 역할에 대해 합의,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맞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실질적인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시행령도 함께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이용구 부회장은 ≪우리 사회는 전문대 96%, 4년제는 77%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들이 자신의 돈은 내지 않고, 공분을 이용해 운영하면서 사립학교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또 사립학교는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인 학사운영 등을 일삼는다≫고 전했다. 또 이용구 부회장은 사학비리의 발생원인을 △소유개념의 이중성 △설립자의 요건 △학교 경영 비민주화 △학교재정의 불투명성 등을 꼽았다. 특히 경영의 비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재임용 탈락 교수가 전국에 300여명으로 이는 제대로 된 기준없이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각종 논란들이 뒷받침해 준다.

이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줬다. 박 부회장은 먼저 ≪사립 학교 문제는 우리 교육의 절반의 문제, 사립학교의 개혁과 정상화가 절반의 교육 개혁과 절반의 교육 정상화를 담고 있다≫며 사립 학교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했다.

박 부회장은 ≪사립 학교에서의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 이사제도 도입 △학교 법인의 감사 중 1인 이상은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수회의 등 외부 추천에 의해 선임이 필요하다. 또 비리와 부패가 발생했을 때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 20조의 이사승인취소 요건을 완화, 명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은 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외에도 현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이야기도 오갔다. 전국대학노조 한정이 정책국장은 ≪대학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대학 민주화를 일구자≫고 말한 후, ≪이것은 교수, 학생, 직원이 함께 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기구 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선대의 대학자치협의회, 한국외대의 대학평의원 등을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5월 민주당과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가지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장효숙기자
유뉴스 2002/04/18

대학 총학생회장단, 교육부장관 ≪고발≫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학재단과 사학재단 감사에 태만한 교육부 감사원이 현직 대학 총학생회장들에게 감사청구와 고발을 당했다.

주진완 동국대총학생회장의 발의로 건국대, 광운대, 덕성여대, 중앙대, 경희대 등 서울지역 17개 대학총학생회장들이 19일(수) 오전 10시께 동국대학교 불상 앞에서 모여 ≪서울지역 사립대학 공동 교육부고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립대학의 등록금대비 교육비 환원률이 100%에도 미치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이 새고 있다≫며 2000년 현재 홍익대 1103억, 동덕여대 720억, 서울여대 194억 등 상당수 대학들이 수십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학의 운영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태만여부와 부정관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후 오후 2시께 ≪동국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대다수 대학에서 사학재단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학내분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운영 감독해야할 교육부는 권고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상주 장관 이하 감사담당관, 대학재정과장 등을 직무태만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주진완씨는 한 사설 교육연구소의 자료 등을 내보이며 동국대, 외국어대, 경희대, 이화여대 사례를 들어 현 사학재단 비리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이러한 사학재단들의 비상식적 운영에 학생들은 단식과 농성, 납부연기로 맞서고 있다.

광운대학교 중앙운영위원들의 18일째 단식을 비롯해 경희대, 외국어대, 한양대,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들이 12일째 단식중이다. 또한 항공, 홍익, 중앙, 동국, 명지, 국민대 등 서울지역학생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 경희대(민주납부 후 동결납부), 외국어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한성대학교 등 15개 서울지역사립대학에서 납부연기를 하고 대학에 따라 총학생회측으로 입금하는 ≪민주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4/19

전국 대학가,4.19 기념행사

마라톤대회및 수유리 기념탑 참배

4.19 혁명 4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열리고 있다.

고려대는 18일(목) 6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마라톤 대회를 열었고 서울대는 19일(금)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4.19정신 계승 결의대회≫를 열고 ≪뜀박질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앙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세종대 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내에서 ≪4.19 기념식≫을 개최한 뒤 오후에는 학교 정문에서 출발하는 ≪4.19 뜀박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김주열 열사 참배단을 모집해, 19일 남원에 있는 묘지에 참배갈 예정이고 전주대 는 각 단대별로 4.19 관련한 사진과 자료집 등을 배포했고, 강원대는 4.19 기념 집회를 열 계획이다.

부산경남지역의 경상대, 부산대, 동아대 등의 대학들도 ≪목표달성 효원, 가자 금강산으로 419 정신 계승제 마라톤대회≫ , ≪418/9정신계승, 615공동선언 이행을위한 민족동아 뜀박질대회≫,≫419혁명정신계승달리기대회≫ 등의 다양한 구호를 내걸고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나 경상대의 경우, 경찰서장 및 의경 100여명과 진주시민 학생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풍성하게 치뤄졌다. 참가한 지역시민들에게는 ≪4 · 19 혁명정신 계승상≫을 비롯하여 ≪419등상≫, ≪615등상≫ 등을 시상하기도 했다.

김장효숙기자
유뉴스 2002/04/19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 (5)

서론
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 수정
6.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7.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 공동선언의 지향
8.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 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 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 결론

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2)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 · 단결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민주노총≫과 ≪전농≫의 지도핵심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명확히 견지하면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양대 전투적 대중조직을 이끌어 가는 지도핵심의 사상적, 정치적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투쟁과 실천 속에서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 · 단결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근본원인은,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적 구심체인 전위조직이 자기의 영도력을 강력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필자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이 연합 · 단결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중심에 확고히 서야 하는데 아직 우리 운동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이 연합 ·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힘이 작용하기 힘들게 되며, 따라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 · 단결을 실현하는 과업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과업을 동시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시기 혁신정당, 진보정당, 중간정당, 대중정당, 합법정당이라는 각이한 명칭을 제시하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던 까닭은, 물론 적대세력의 악랄한 탄압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체적 조건에서의 원인은 당건설의 주체에게 정당 건설의 사상적 기초, 정치적 기반, 조직적 전망이 부재했거나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건설의 지도핵심세력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고, 지역통일전선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축성하지 못했으며, 당건설사업의 조직적 전망에 대한 인식이 부실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지역통일전선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고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로 건설되는 정치조직이며, 또한 신식민지의 각이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당적 체계로 통합하고 조직화한 정치조직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연대 · 집결시키려면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탄력성과 포용성을 지녀야 합니다. 만일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자기와 똑같이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정치세력을 외면한다면, 진보적 대중정당의 폭넓은 정치적 기반은 형성될 수 없으며,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힘을 지역통일전선으로 조직 · 동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선명하게 제시한 사회정치세력들만이 집합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정당은 결국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여러 정파들의 연합체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식민지의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 가운데 비록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선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민족자주적 속성,

광 고

노작 – 남북연석회의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태양절 특집 -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하자!
지난 30년간 12억 4천여만명 만수대동상 찾아 경모의 정 표시
주석께서 찾으신 단위수 2만 600여개
김일성주석께 드린 선물 16만 5, 839점
기념주화 ≪영원한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발행
김일성주석 탄생 90돐 즈음해 공화국정부에서 연회
문헌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하여≫ 출판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례식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김정일총비서 참석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경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여러 나라 당대표단과 대표들을 위하여 연회 마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개관,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 개막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진행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 김일성주석께 경의 표시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 성원들이 결의문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평양시내 여러 곳과 각지에 모신 주석의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주석 탄생 90돐기념 청년학생들 야회
김정일총비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 관람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
태양절기념련환무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9차회의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의 토론회 진행
주체의 태양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 영원하리

→

민주개혁적 속성, 통일애국적 속성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는 세력이라면 그 속성을 연결고리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의 개방된 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운동권 내부의 정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회정치세력들과 손잡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일보 전진하는 거대한 대오를 형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통일전선전략의 요체이며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의 전략적 방침입니다. 인민대중 속에 분산 · 잠재되어 있는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집약 · 분출시킴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 민족반역자들을 고립 · 타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투쟁의 목표입니다.

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선거정국이 면전에 다가오는 지금, 신식민정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집권층 개혁파에 대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하려면 우선 집권층 개혁파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됩니다.

주지하다시피, 근래에 와서 미제의 식민통치방식에서 일정한 변화, 비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변화란, 신식민지 정치권이 개혁파와 반동수구파로 분화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미제와 민족자주역량 사이의 투쟁이 미제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미제의 신식민체제가 차츰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신식민지 정치권은 개혁파와 반동수구파로 분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식민지 정치권의 내부분화가 미제의 신식민체제 유지전략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미제는 자기의 신식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대중이 외면하는 반동수구파를 내버리고 개혁파를 앞에 내세워 집권시키는 교활한 정치공작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문민≫을 표방했던 김영삼 정권을 거친 뒤에 ≪국민의 정부≫라는 간판으로 바꿔 달았던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는 신식민지 정치권의 변동방향은, 미제와 민족자주역량 사이에 벌어진 투쟁이 미제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온 과정, 그리고 그에 따라 미제의 신식민체제가 차츰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고 있는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신식민지 정치권에서 군부파시스트세력를 퇴장시키고 반동수구파 대신에 개혁파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제의 식민통치방식의 변화는, 이미 1980년대 후반기부터 전 세계 신식민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신식민지 정치권의 변동방향에서 금년의 선거정국을 조망한다면, 미제는 금년 말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층 개혁파가 다시 정권을 잡도록 정치공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공작에 따라 집권층 개혁파를 대표하는 부르조아 정객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식민지 정치권의 내부에서 집권층 개혁파가 미제의 사주 밑에 약진하여 정치권에서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들은 미제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아니고서는 신식민정권이 다른 성격의 정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의 인식은 확고불변해야 합니다. ≪개혁정권≫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달아놓은 김대중 정권은 미제가 자기의 점령지역에 만들어놓은 신식민정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인식에서는 추호의 혼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정국에 등장하는 각이한 정치세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세력이 얼마나 개혁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되어야 합니다. 미제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개혁≫을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미제의 비호와 육성에 의하여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 정권 출현 이후의 신식민지 정치정세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르조아 개혁정책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호전되고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역량이 장성하게 되어 자본가계급이 노동계급을 이전처럼 무자비하게 억압 · 착취하지 못하게 된 조건에서 양대 계급이 일정하게 타협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르조아계급독재의 산물입니다. 더욱이 신식민체제의 집권층이 주도한다고 떠들고 있는 ≪개혁≫은 자기의 신식민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미제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집권층 개혁파의 ≪개혁정책≫이란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미제가 신식민지 부르조아 정객들의 손에 들려준 허울 좋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이미 파산이 예정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신식민지에서 떠들어대는 집권층 개혁파의 ≪개혁정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이익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미제의 요구에 의하여 신식민지 정치권에 출현한 ≪개혁정책≫은, 장차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하였을 때 등장하게 될 자주적 민주정권의 참다운 민주개혁정책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미제가 집권층 개혁파의 손에 쥐어준 정권을 빼앗는 치열한 정치투쟁을 벌어야 하며 종국적으로 집권층 개혁파를 정권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개혁은 그것이 어떤 주체에 의하여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부르조아계급독재의 타협적 산물이 될 수도 있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수립된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과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위해 복무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주개혁을 자기의 정치강령으로 가집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 · 보장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차 민주주의혁명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에서 민주개혁을 자기의 정치강령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이라는 정치강령을 제시하고 있다는 피상적 측면을 관찰하면, 집권층 개혁파의 개혁정책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민주개혁정책은 적대적 모순관계라고 볼 수 없으나, 정권을 장악하는 치열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본질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진보적 대중정당과 집권층 개혁파는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미제의 하수인인 집권층 개혁파가 지니고 있는 신식민지예속성은 진보적 대중정당의 민족자주성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관계를 성립시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집권층 개혁파와는 상호연대할 수 없지만, 집권하지 못한 민주개혁세력과는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통일전선으로 인입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집권층 개혁파와 진보적 대중정당이 선거정국에서 타협하여 이른바 ≪연립정권≫을 수립하고 그 정권을 개조 · 발전시켜 장차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제의 신식민체제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에로의 평화적 이행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미제에게 장악되어 있는 집권층 개혁파와 정권연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미제의 식민통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몽매한 발상이며,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로 땀흘려 건설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결국 전국적 통일전선에서 분리 · 이탈시켜 미제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제의 식민통치가 일반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개혁파를 외면하고 포악한 군부파시스트들과 반동수구파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지난 시기에는 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파쇼민주전선의 일환으로 재야 개혁파와 손을 잡고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전혀 달라진 조건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 시기 신식민지에서의 개혁과업은 미제의 비호 · 육성책에 의해 출현한 집권층 개혁파가 자기의 정치적 이용물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집권층 개혁파에게 그 개혁과업을 실현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집권층 개혁파는 인민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미제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과업은 미제의 식민통치방식의 변화에 따라 미제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주개혁을 자기의 정치강령으로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민주개혁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각종 반민주 악법들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관들을 해체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진보적 정당의 민주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겠습니다.

선거정국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관점과 태도는, 어디까지나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전망이 불투명하였던 지난 시기의 선거전술에 의존해서는 금년의 선거정국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으며,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자기의 전략목표로 아직 세우지 못했던 지난 시기의 선거전술을 가지고서는 금년의 선거정국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선거정국에서 반동수구파를 고립 · 타격해야 한다는 전술적 목표만을 단선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집권층 개혁파와 공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은 지난 시기의 낡은 선거전술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과업과 관련해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필자는 지난해에 발표한 논문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에서 김대중 정권의 화해 · 협력성을 거론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동수구세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권과 전술적 공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혁명기지의 사회주의정권과의 화해 · 협력을 실현하는 6.15 공동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층 개혁파와 반동수구세력 사이의 모순이 격화되는 경우,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반동수구세력을 고립 · 타격하기 위하여 집권층 개혁파와 공조전술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논문에서 논한 것은, 혁명기지의 사회주의정권이 신식민정권을 상대로 하여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특정국면에서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신식민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전략적 타격(정권퇴진투쟁)이 아니라 신식민정권의 예속성, 반민중성에 대한 전술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장악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는 선거정국에 대응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전술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전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전술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전진시켜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거정국에 뛰어드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의 선거정국에 대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정국을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돌파하자!, 이것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당면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 · 보장하는 민주개혁정책을 제시하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각계각층 인민대중 속으로 확장시키고, 선거정국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인민대중이 선택할 대안세력으로 정치무대에 등장시키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미제의 신식민지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민족민주운동가들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입니다. 이 시대의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겠습니까?

주체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으로 무장하는 것, 혁명승리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필승의 의지로 투쟁하는 것,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혁명전사에게 요구하는 3대 임무입니다. 이 논문이 주체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으로 무장하려는 동지들의 임무수행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혁명전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혁명운동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혁명위업과 통일위업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혁명전사들에게 달려있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오늘의 혁명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쓰러진다 해도 혁명승리의 미래를 위하여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강철의 전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혁명전선은 혁명위업을 위해서라면 웃으며 자기 심장의 피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불굴의 전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악랄한 반혁명책동 아래 신음하는 신식민지의 저 두꺼운 어둠을 뚫고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혁명전사 그대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끝)

대표집필자 최성원